

호남-LG, 타법인 출자 3000억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타법인 출자액 2배 증가 ... 경쟁력 강화 목적?

2003년 들어 상장기업들의 타법인 출자규모는 크게 늘어난 반면, 출자지분 처분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기업들은 신규사업 진출이 증가했으나 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3년 4월22일까지 상장기업 타법인 출자건수는 66건, 대상기업은 46개로 2002년 같은 기간의 70건, 56개 기업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자금액은 2조6725억원으로 2002년 1조2735억원에 비해 109.9%나 증가했으며, 1개 회사 평균 출자금액도 227억4000만원에서 581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출자지분을 처분한 법인은 36개 기업, 47건으로 각각 35.7%와 43.4% 줄었고, 총 처분금액도 1조4546억원으로 19.3% 감소했다.

2003년 상장법인들은 건설, 기계장비·운수, 전지전자, 화학, 통신업종에서 신규진출이 두드러졌다.

화학기업의 출자건수는 모두 4건, 금액으로는 7513억원에 이르렀으며, 생명공학에서는 2건, 19억원을 기록했다.

타법인 출자금액은 상용자동차 법인 설립을 위해 다임러현대상용차에 출자한 현대자동차가 6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석유화학과 LG화학이 각각 3000억원, 조흥은행 2477억원, 금호산업 1536억원, 현대모비스 1379억원, LGCI 12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석유화학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LG화학은 원료의 안정적 확보, 시너지 효과를 위해 현대석유화학에 각각 출자했다.

타법인 출자금액 상위법인

(단위: 건, 100만원)

구 분	출자건수	출자금액	구 분	출자건수	출자금액
현대자동차	1	649,000	현대모비스	1	137,987
호남석유화학	1	300,000	LGCI	2	128,731
LG화학	1	300,000	한국외환은행	1	115,806
조흥은행	2	247,708	우리금융지주	1	112,781
금호산업	2	153,640	K T	1	100,000

출자지분 처분금액 상위기업에는 현대자동차, SK글로벌, 포스코, 쌍용양회, LG전선, LG산전 등과 함께 윤촌화학(327억원)과 CJ(249억원)가 포함됐다.

한편, 타법인출자 공시법인의 공시일 대비 주가는 4월22일 기준으로 음식료, 서비스, 건설업종의 주가가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기업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4.95%를 나타내 전체산업 평균 8.75%에 미치지 못했으나 KOSPI 대비로는 4.80%를 나타내 전체산업 평균(4.80%)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생명공학업종은 평균 등락률 11.46%, KOSPI 대비로는 11.68%로 비교적 높았다.

증권거래소는 국내 상장기업들이 2002년 실적호전에 힘입어 신규사업 진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로 타법인 출자는 증가한 반면,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출자지분 처분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8>